

Research Center

2017년 6월 20일

투자전략 Daily

• 경제분석

뉴노멀 탈출기 (3)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 중화권 증시 동향

중화권 증시 상승, 간만에 증권주 반등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알엔투테크놀로지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SK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인터넷, 엔씨소프트, 동양생명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전 략 총 괄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 T F | 강승철 ☎ 3276-6181
스 몰 캡 전 략 | 정훈석 ☎ 3276-6232
해 외 주 식 | 백찬규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설화 ☎ 3276-6274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 3276-6184
글 로 벌 기 업 | 정희석 ☎ 3276-6277
자 산 배 분 전 략 | 정현중 ☎ 3276-6191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해 외 채 권 | 박승진 ☎ 3276-6560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6/13(화)	6/14(수)	6/15(목)	6/16(금)	6/19(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374.70	2,372.64	2,361.65	2,361.83	2,370.90
	등락폭	16.83	-2.06	-10.99	0.18	9.07
	등락종목	상승(상한)	407(0)	236(1)	365(0)	388(2)
		하락(하한)	418(0)	555(0)	439(0)	418(0)
	ADR	117.45	119.07	115.06	117.03	111.40
	이격도	10 일	100.35	99.83	99.76	100.15
		20 일	101.31	100.69	100.54	100.75
	투자심리	50	50	40	50	50
	거래량 (백만 주)	322	393	335	329	289
	거래대금 (십억 원)	5,665	6,795	5,883	5,965	5,361
코스닥	코스닥지수	669.23	671.59	669.82	670.7	675.44
	등락폭	4.37	2.36	-1.77	0.88	4.74
	등락종목	상승(상한)	577(3)	400(1)	532(1)	534(1)
		하락(하한)	517(0)	694(0)	560(0)	578(0)
	ADR	106.76	107.06	106.71	106.79	107.46
	이격도	10 일	101.09	100.56	100.44	100.89
		20 일	102.70	102.20	102.08	102.54
	투자심리	90	90	80	80	80
	거래량 (백만 주)	627	646	673	608	575
	거래대금 (십억 원)	3,539	3,479	3,386	3,496	3,368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770.5	1,435.3	1,074.9	372.5	94.1	179.6	107.8	12.8	308.1	86.9
	매도	2,873.0	1,311.2	1,129.4	233.4	112.2	165.1	126.6	19.7	472.4	53.9
	순매수	-102.5	124.1	-54.5	139.2	-18.1	14.6	-18.8	-6.9	-164.3	32.9
	6월 누계	527.8	1,036.5	-2,125.2	-228.6	-115.1	-78.8	-283.9	-151.4	-1,267.3	560.9
	17년 누계	-4,846.3	8,597.7	-7,075.2	761.4	-1,225.6	-3,955.6	-84.5	-547.5	-2,023.5	3,323.8
코스닥	매수	2,957.2	274.9	127.1	31.3	6.7	23.9	19.4	3.4	42.4	18.4
	매도	2,966.9	237.5	135.9	37.4	14.9	28.6	17.9	2.7	34.4	37.2
	순매수	-9.7	37.4	-8.8	-6.1	-8.2	-4.8	1.5	0.7	8.0	-18.9
	6월 누계	141.1	203.5	-275.0	-77.3	-10.7	-23.6	-72.9	-9.9	-80.6	-69.6
	17년 누계	1,762.5	1,095.3	-1,997.9	-573.2	-289.6	-589.8	-244.7	-40.5	-260.2	-860.0

뉴노멀 탈출기 (3)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2017년 Target KOSPI	2,350pt
12MF PER	9.82배
12MF PBR	0.99배
Yield Gap	8.6%p

- ▶ 금융위기 이후 채권금리 하락으로 전세계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 ▶ 연준 자산인축에 따른 채권금리 정상화로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국면 진입
- ▶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 국면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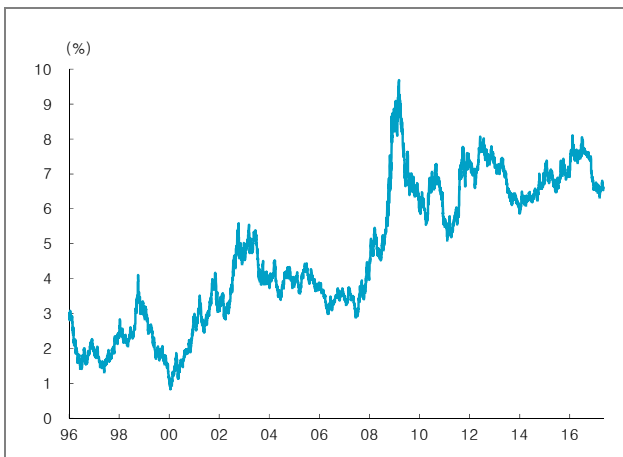
■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의 이유 - 채권금리 하락

뉴노멀로 통칭되는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기대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매우 높아졌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선진시장과 이머징 주요국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모두 금융위기 이후 그 이전보다 한 단계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해설도우미 참조).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 이유는 주식의 기대수익률 상승보다는 채권 금리가 그 이전과 달리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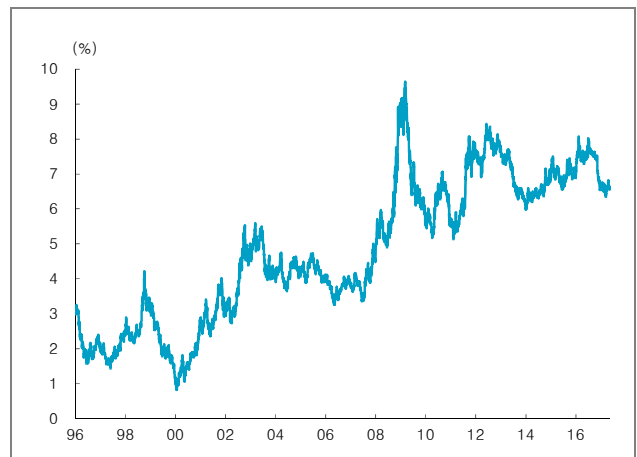
미국의 경우를 보자. 금융위기 이후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최근 10년 평균 수준인 8.9% 내외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채권 금리의 경우 10년물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2.5%를 기록, 최근 10년평균 2.7%보다 낮고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7년 사이 평균인 4.5%보다 현저히 낮은 레벨이다. 이에 따라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의 경우 2001~2007년 사이 기록한 3.5%에서 금융위기 이후 6.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글로벌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선진시장 주식리스크 프리미엄



자료: 한국투자증권

한국의 경우도 유사하다. 금융위기 이전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8.5%에서 금융위기 이후 7.8%로 10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채권의 경우 5년물 기준 금융위기 이전 4.8%에서 금융위기 이후 3.1%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리스크 프리미엄 역시 금융위기 이전 평균 3.7%에서 4.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설도우미 1〉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기대가 현실화될 확률이 높은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기대가 현실화될 확률이 낮은 자산을 위험자산이라고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하철과 택시의 차이다. 지하철은 구간별 운행시간이 대체로 정확한 반면 택시는 지하철보다 상대적으로 편안하지만, 도착시간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택시는 지하철보다 비싸다.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택시의 도착시간처럼 불확실한 반면 채권의 기대수익률은 대체로 정확하다. 이 둘의 차이를 금융경제학에서는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개념은 기본적으로 ‘투자는 리스크’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가 흔히 망각하지만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투자는 미래의 수익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하는데 미래의 수익이 현재의 기대와 같이 동일하게 나올 확률은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자산에 내포된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지금도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자산간의 상대적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은 자산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된다.

이처럼 자산배분 관점에서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은 매우 중요하다. 통상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할 때는 채권이 유리하고 하락할 때는 주식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충분히 높아졌을 때는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12개월 이후 수익률의 경우 채권보다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은 주식의 기대수익률과 채권의 기대수익률을 차감해서 구한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통상 주식수익비율(PER)의 역수인 어닝스 일드(E/P, Earnings Yield)를 채권수익률에서 차감하는 소위 Fed Model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데 이 방법은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닝스 일드와 주식의 기대수익률 간의 관계는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학계와 금융시장에서는 약 20개의 모델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들을 카테고리별로 구분해 보면 1) 역사적 수익률을 이용하는 방법, 2) 기대수익률 측정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3) 배당할인모델 이용, 4) 자산간 회귀분석법, 5) 시계열 분석법 등으로 나뉘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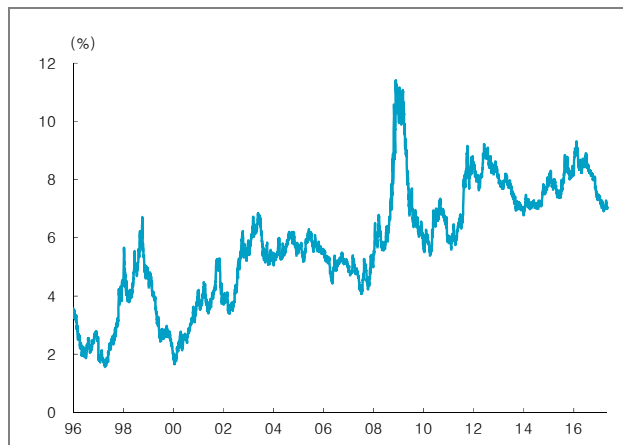
본문에서는 배당할인모델을 기초로 지역, 국가별 주식시장 기대수익률을 도출한 후 미국채 10년물을 기초로 주식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을 구했다.

[그림 3] 이머징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아시아 (일본제외)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5] 미국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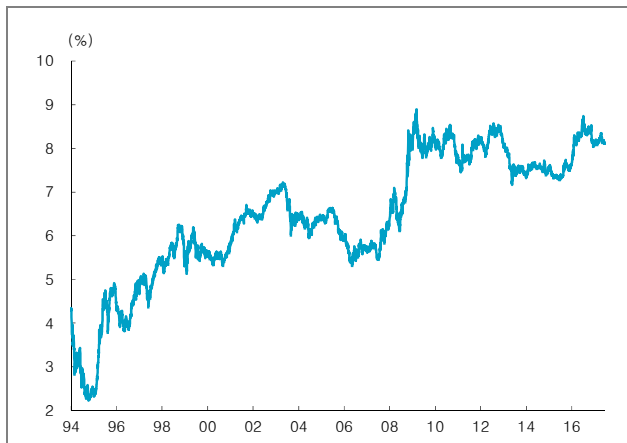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유럽 시장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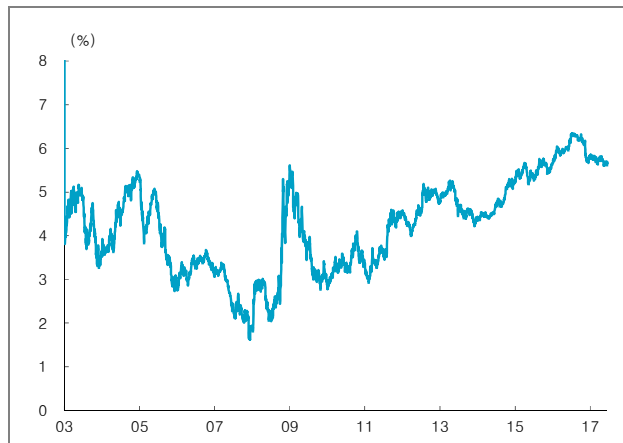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일본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8] 한국 시장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자료: 한국투자증권

〈해설도우미 2〉 3단계 배당할인모델

주식의 가치평가모델에서 핵심은 향후 주주입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익을 무엇으로 할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주입장에서 가장 먼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이익의 배당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든의 배당모델은 배당이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도출된다.

$$P_t = \sum_{i=1}^{\infty} \frac{D_t(1+g)^i}{(1+h)^i} = \frac{D_t(1+g)}{h-g} \quad (1)$$

그러나 이 배당모델의 단점은 익히 알려져 있듯이 배당이 일정한 비율로 영구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배당 증가율의 변화를 몇 단계로 나눈 모델이다. 대표적인 것이 골드만삭스에서 사용하는 2단계 배당할인모델, 뉴욕대 MBA 교수인 다모다란(Damodaran)이 사용하는 6단계 배당할인모델 등이 있다.

반면 우리는 유럽중앙은행과 독일 분데스뱅크에서 사용하는 3단계 배당할인모델을 기본으로 분석에 사용한다. 아래는 3단계 배당할인모델을 표현한 식인데 여기서 COE는 주식의 할인율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주의 기대수익률이기도 하다.

$$p_t = \frac{D_t[(1+g_L)+A*(g_H-g_L)]}{(COE-g_L)} \quad (2)$$

P_t = 적정주가, D_t = 배당금, g_L = 장기배당성장률, g_H = 고속성장률
 A = 고속성장기간, COE = 주식할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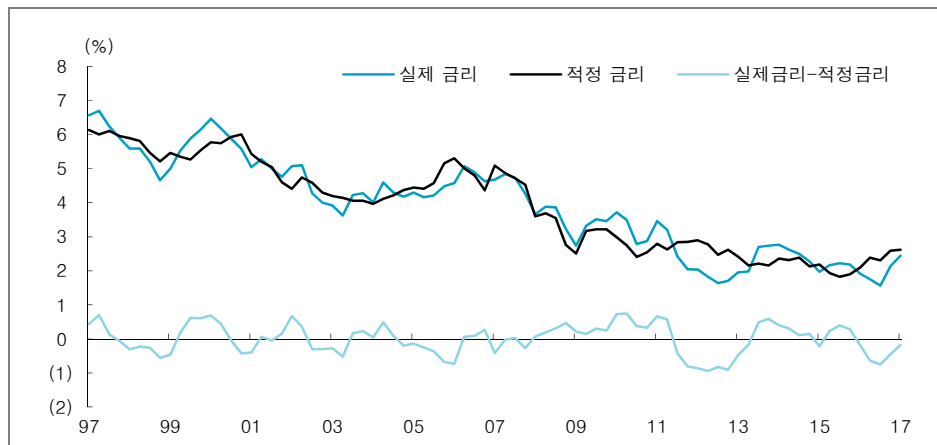
ECB의 배당할인모델과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분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CB, 2008, "Valuing Stock markets and the equity risk premium," Monthly Bulletin, November, 참고

■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을 전망하는 이유

향후 채권 금리가 정상화되면서 주식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채 금리를 억눌렀던 연준이 자산인축에 나서고 신흥시장 역시 외환보유액 증가세 둔화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는 현재보다 높은 레벨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래 그림을 보면 미국 채권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현재 적정수준 대비 약 20bp 정도 실제 금리가 낮은 수준이다. 향후 미국 연준 자산인축과 신흥시장 외환보유액 감소 등을 반영해 보면 현재보다 금리는 70bp 정도 더 높게 형성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9]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 적정 수준과 실제 금리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참고: 미국 채권금리 10년물의 경우 다음을 기초로 적정 금리 수준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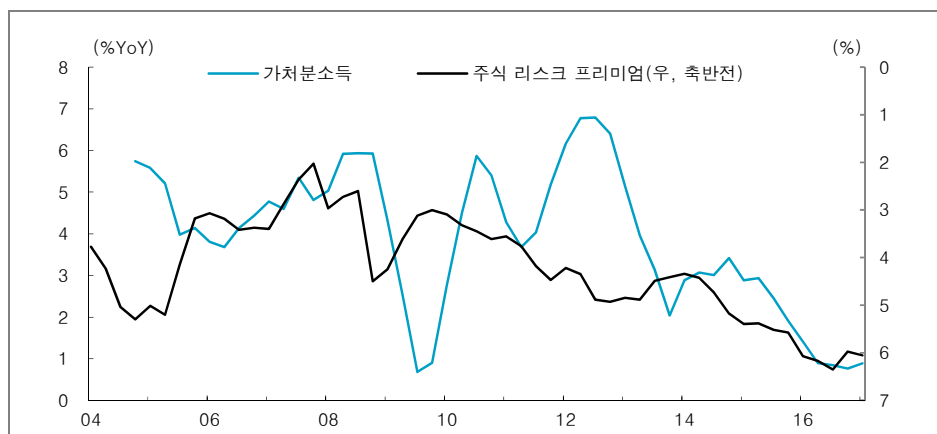
미국 10년물 = a + b1*단기금리 + b2*미국은행 초과지준 + b3*신용시장 외환보유액
+ b4*미국기업들의 자본갭 + b5*정부지출

이러한 글로벌 변화와 더불어 국내 요인 역시 주식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 몇 년간 국내 가계는 가처분 소득 증가가 정체되면서 저축에 힘썼고 그 결과 주식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은 상승하게 되었다. 즉 국내 가계는 가처분 소득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안전자산 위주의 자산배분에 나서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정상화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 등이 결합된다면 향후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국내 시장 역시 향후 리스크 프리미엄은 상승 보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진다.

뉴노멀 탈출에 따라 주식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한다면 향후 기대수익률 관점에서 채권보다는 주식에 유리하다. 뉴노멀 탈출이 다가오는 지금 주식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 이유다.

[그림 10] 국내 가처분 소득 증가율과 주식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중화권 증시 상승, 간만에 증권주 반등

- ▶ 상해종합지수는 0.7% 상승, 유동성 경색 우려 축소와 증감회 주석의 투심 고무발언이 호재
- ▶ 홍콩H지수는 1.3% 상승, 직전주 금융주의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저가매수세 유입

상해종합지수 0.7% 상승,
증권, 보험, 석탄, 가전, 철강, 시멘트 등의 업종 강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0.7% 상승한 3,144p로 마감했다. 보합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상승폭이 확대됐다. 거래대금은 1,517억위안으로 직전일과 비슷했다. 인민은행이 공개 시장조작을 통해 시장에 1,100억위안 규모의 순 유동성을 공급한 것과 IPO 승인 속도가 늦어진 것이 유동성 경색 우려를 축소시켰다. 주말에 있는 증감회의 기자회견에서 류스위 주석이 기업 M&A, 국유기업개혁 등 투자심리를 고무하는 발언들을 한 점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보험주들이 상승했고, 하반기 주식시장의 완만한 상승 전망에 증권주들이 오래 만에 반등했다. 반면 은행과 환경보호, 리튬 배터리 관련주들이 하락했다. 대형 우량주의 강세 속에 차스닥 지수는 0.4% 상승한 1,816p로 마감하며 대형주 대비 약세를 보였다. 한편 외국인들은 상해A와 심천A주를 각각 11.4억위안, 11.5억위안 순매수하며 매수폭이 확대됐다.

홍콩H지수 1.3% 상승,
금융, 유틸리티, 소비재, 에너지 등의 업종 강세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1.3% 상승한 10,521p로 마감했다. 강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상승폭이 확대됐다. 직전주 금융주의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확대되며 금융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 또한 본토 자금의 순 유입세가 이어진 것이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 업종별로 금융, 유틸리티, 소비재, 에너지 등이 상승했다. 홍콩 금융주의 상대적 강세 속에 A/H프리미엄은 122.4p로 하락 마감했다. 텐센트 홀딩스(700.HK)의 모바일 게임인 '와자영요'가 글로벌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텐센트 홀딩스와 금융주의 강세 속에 항생지수는 1.2% 상승한 25,925p로 마감했다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 분	6/19 (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144.37	0.68	0.14	1.74	1.31
심천종합	1,876.85	0.58	2.18	1.25	-4.69
차스닥	1,816.40	0.35	2.30	0.85	-7.42
홍콩H	10,520.80	1.31	0.33	2.47	11.98
Shibor 7일물 금리(% , %p)	2.92	0.22	0.61	1.40	14.84
Shibor 1개월 금리(% , %p)	4.70	-0.02	0.33	15.79	42.11
중국국채 10년물(% , %p)	3.49	-2.11	-2.58	-3.49	15.25
위안/달러 고시환율	6.7972	-0.03	0.05	-1.18	-2.02
역내 위안/달러	6.8173	-0.10	-0.28	0.99	1.87
역외 위안/달러	6.8219	-0.14	-0.39	0.77	2.26

주: 19일 오후 6시 6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상승

- 뉴욕증시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주요 유통업체와 식료품업체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과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차익 실현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금융투자 매수세가 상승세를 지켜내며 2,370P선 탈환에 성공. 코스닥은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세가 상승을 주도하며 이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하반기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SK하이닉스가 장중 63,000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미국 FDA가 자회사 LSKB의 항암신약 '아파티닙'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에 에이치엘비가 초강세를 보임.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등 '탈핵 시대'를 선포함에 따라 풍력,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고리 원전 1호기가 영구 폐쇄되며 원전 해체작업에 1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에 과거 정부기관과 원전사고 복구기술 개발 경험에 있는 오르비텍이 상한가를 기록. 또한, 오는 7월부터 중국 현지공장 가동을 본격화해 중국 내수용 판매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는 소식에 현대아이비티가 급등했으며, 여름 성수기 효과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한진칼, 대한항공이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 반면, 신고리 5,6호기 관련 일감 증발 가능성에 두산중공업, 한전기술이 10% 이상 급락하는 등 원전 관련주가 급락세를 보였으며, 외국계 매도세가 유입되며 한샘이 5% 이상 하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SK하이닉스(000660) ▶62,800 (+3.80%)	실적 성장세 지속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중국 스마트폰 판매부진으로 실적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서버용 DRAM 수요가 증가하며 중국 모바일 수요 약세를 상쇄해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신고가 경신 - 아울러,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에 힘입어 2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에이치엘비(028300) ▶16,300 (+17.27%)	‘아파티닙’ 희귀의약품 지정 소식에 초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 LSKB의 항암신약 ‘아파티닙’이 한국과 유럽에 이어 미국 FDA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초강세 - ‘아파티닙’의 지난해 중국 내 매출은 1,400억을 상회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대체에너지 관련주	문 대통령의 ‘탈핵시대’ 선포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탈핵 시대’를 선포함에 따라 대체에너지인 풍력, 태양광 등이 수혜 기대감에 강세 - 유니스(018000, +17.57%), 웅진에너지(103130, +12.70%), 동국S&C(100130, +7.70%), 태웅(044490, +6.10%), 씨에스원드(112610, +5.37%)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대한항공(003490) ▶38,750 (+5.16%)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 및 성수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NHN엔터(181710) ▶82,200 (+5.66%)	-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가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6개월 만에 누적결제액이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알엔투테크놀로지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알엔투테크놀로지 (148250)	8,570 (+22.4)	7,000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전력소모와 높은 신뢰성을 겸비한 LTCC 소재 수요는 전자부품의 경박단소 및 고주파화에 따라 증가할 전망 지난 4월 증설한 강릉 2공장이 18년 2분기부터 가동하며 신규품목 생산에 따른 매출 확대 전망 향후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
하츠 (066130)	6,250 (+4.9)	5,960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년 이후 본격적인 신규 입주물량 증가에 따라 올해와 내년 레인지후드의 매출 증가 전망 매출의 1/4가량을 차지하는 빌트인기기의 자체 생산을 통한 이익률 개선 전망 신규 건축물의 대형화와 초고층화 추세로 환기시스템 시장의 구조적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씨엠에스에듀 (225330)	28,650 (+1.2)	27,950 (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년 1분기 잠실과 서초 직영점 개원에 이어 연간 4~5개의 직영점 확대로 안정적 성장 지속 전망 5%를 상회하는 높은 배당 매력 보유와 동시에 코딩교육센터를 통한 신규 성장 동력 강화 18년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수학교육 수요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 전망
코엘패션 (033290)	3,850 (+12.7)	3,415 (4/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기반의 SPA 브랜드 전략을 통해 원가 경쟁력 확보 가능 언더웨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연 평균 11.7%)에 따른 수혜 전망 최근 제품 다각화를 통해 언더웨어 외 매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향후 브랜드 추가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성장이 기대됨
티웨이홀딩스 (004870)	4,170 (+58.3)	2,635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기 대수 증가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수익성 개선 전망 경쟁 저비용항공사 대비 비행기 사용 연차가 낮아 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운영 효율성이 높음 일본과 동남아로의 노선 다양화를 통해 중국 여행객 감소에 따른 피해 최소화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5.6배로 저평가 매력 상존
대아티아이 (045390)	2,050 (+2.2)	2,005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정부 투자로 신호제어 및 열차 자동 정지장치(ATP) 수주가 확대될 전망 지하철 1,2호선 노후화에 따른 대규모 보수 공사로 대형 수주 획득 가능성 2009년 이후 지연되고 있던 24조 규모의 GTX(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사업 공사가 2018년부터 시작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SK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SK (034730)	274,500 (-2.0)	280,000 (5/29)	92,094	6,175	6,025	39,396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주주환원정책과 재벌기업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따른 수혜 전망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자회사들의 실적 상향 추세 지속 전망 실트론 인수를 통한 자회사 간 시너지와 탈석탄 발전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전망 				
풍산 (103140)	40,400 (-1.0)	40,800 (5/23)	2,970	279	190	6,766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 풍산 주가의 저평가 요인인 Roll margin(가공이익)이 과거 3~4%에서 올해 1분기 7%까지 상승하며 주가 할인 요인 제거 현재 주가는 2017년 예상 실적 기준 PER 6.0배, PBR 0.8배(ROE 14.4%)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이지바이오 (035810)	7,280 (+10.5)	6,590 (5/17)	1,438	99	41	754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계 및 돈육 시세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성수기 진입에 따라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실적 달성이 가능할 전망 올해 당사의 자회사인 옵티팜 상장에 따른 공모자금 유입으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 6월 하림그룹의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코스닥 상장에 따라 당사의 주가가 재조명될 가능성 존재 				
파트론 (091700)	10,500 (-7.5)	11,350 (4/13)	887	67	51	979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갤럭시S8 사전예약이 돌풍을 일으키며 전면 카메라 주요 부품 공급사들의 수혜 예상 스마트폰의 스펙 향상과 IoT제품 판매 증가에 따라 센서모듈사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모듈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시장과 헬스케어 센서 시장으로 본격 진출 예상 				
오텍 (067170)	15,300 (+34.8)	11,350 (4/6)	828	37	17	1,288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대 최대치인 전국 입주 아파트 가구 수와 미세먼지 우려 등으로 기능성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수요 증가 전망 2018년 페럴림픽 참가 선수를 위한 장애인용 버스 및 택시 부족으로 정부의 관련 투자 확대 가능성 작년 4월 인수한 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오텍캐리어 통합빌딩관리 서비스(BIS)와 시너지 효과 기대 				
NAVER (035420)	878,000 (+8.5)	809,000 (3/3)	4,633	1,372	973	32,386	2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스냅챗' 상장에 따라 사진 중심의 메신저인 '스노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예상 인공신경망 기반 통번역 서비스 '파파고'에 이어 웹브라우저 '웨일', 음성비서 '클로바' 등 적극적인 R&D 결과물이 공개되면서 기술플랫폼 업체로서의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NAVER, SK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인터넷: 아마존,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한 기존 사업의 강화

■ 아마존 : Whole Foods Market 인수를 통한 기존 사업의 강화 기대

아마존은 현지시간 16일 유기농 식료품 체인업체인 Whole Foods Market을 137억 달러(전일 종가에 27% 프리미엄 적용)에 인수하며 사업 영역 확대를 가속화했다. 이번 인수의 목적은 아마존의 오프라인 유통업 내 영향력 확대 외에도 프라임 회원에게 제공되는 당일 배송 서비스인 ‘아마존 프레시’ 등의 기존 사업 강화인 것으로 해석된다. Whole Foods는 미 전역 430여 곳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로 인수 이후 아마존의 유통망이 확대되며 이용자들은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비 성향이 높은 프라임 멤버의 수가 증가하며 단기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거점 확대로 ‘드론 배송’ 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되며 ‘AI 스피커’인 ‘에코’의 활용성도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마존은 향후 오프라인 업체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 내 영향력도 빠르게 확대할 전망이다.

■ 아마존,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 온라인 쇼핑과 광고 시장 공략할 전망

아마존은 지속적인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 빠르게 성장 중인 온라인 쇼핑과 온라인 광고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보급 확대와 함께 소비자들은 다수의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편의성이 뛰어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했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 쇼핑 시장의 고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2020년 기준 전체 소비액 내 온라인 비중은 14.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온라인 서점을 시작으로 의류와 소비재 등으로 빠르게 사업 영역을 확대한 아마존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3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당일 배송’ 및 ‘드론 배송’ 등 기존 오프라인 업체들이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들을 통해 유통업 내 위치를 강화했다. 아마존이 글로벌 시장 내 주요 소비 플랫폼으로의 위치를 공고히 함에 따라 광고주들의 수요도 아마존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이 보유한 이용자들의 실제 구매 데이터들은 광고주들의 ROAS(Return On Ads Spending) 개선을 견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 커머스 분야로의 진출을 통한 국내 플랫폼들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1) 온라인 커머스, 2) 동영상 광고, 3)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타겟팅 광고 등 글로벌 인터넷 트렌드를 벤치마크하며 성장했다. 즉, 긍정적 관점에서 현재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상황은 매출 정체기가 아닌 성장 초입 및 투자 단계라고 해석 가능하다. NAVER는 ‘스토어팜’을 통해 오프라인 가맹점들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유입해 거래액의 지속적인 성장을 시현 중이며 Google의 성장을 이끈 PLA(Product Listing Ads)와 유사한 ‘쇼핑 검색 광고’를 출시했다. 단기간 내 오프라인 진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NAVER페이’와 ‘Naver톡톡’ 등 오프라인 업체들이 제공할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 출시를 통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도 최근 이마트와 함께 ‘카카오 장보기’ 서비스를 출시하며 커머스 분야로의 진출을 본격화했으며 기존 서비스인 ‘선물하기’ 관련 매출 또한 꾸준히 성장 중이다. 오는 4분기 국내 알리페이 가맹점을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통합함에 따라 오프라인 시장 내 영향력도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6월 1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엔씨소프트(036570)

매수(유지)

목표가: 560,000원(상향)

종가(6/16): 407,500원

보수적인 가정에도 충분한 upside

■ 역대급 기록을 갱신한 '리니지 M'의 평균 일매출 추정치 상향

기준 추정 근거 대비 빠르게 상승한 사전 지표를 감안해 '리니지 M'의 2017년 일평균 매출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7억원으로 상향한다. 중복 등록에 따른 오차 범위 축소를 위해 사전 캐릭터 생성을 마감한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추정된 보수적인 수치이다. 오는 21일 출시를 앞둔 '리니지 M'은 50여일 만에 500만명을 상회하는 사전 예약자수를 기록했으며 120개의 서버에 사전 캐릭터 생성이 마감되었다. 1개월 ARPPU 61.8억원을 기록한 '리니지 레볼루션'의 사전 지표를 큰 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1) 3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면 이용자 기반, 2) PvP와 개인 간 거래 등 '리니지1'의 핵심 성공 요소와 모바일 게임의 주요 매출 창출원인 확률형 아이템과의 시너지, 3)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한 리니지 이용자들의 높은 소비 성향을 고려할 때 '리니지 레볼루션' 수준의 일평균 매출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iOS 진출 여부에 대한 우려는 기우

거래소 기능 탑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까지 출시된 '리니지' IP 기반 게임들의 경우 iOS 매출 비중이 10-15% 수준이다. 최악의 경우 iOS 출시가 불가능하다고 가정해도 전반적인 매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엔씨소프트는 일부 기능 수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iOS 출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 플랫폼에만 출시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등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차일드'는 안드로이드용 2개 빌드와 iOS용 1개 빌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리니지 M'의 경우 요구 사양이 낮은 게임이기 때문에 하드코어 이용자들의 저가형 Second Device 구매를 통한 안드로이드 버전 진입 가능성도 높다.

■ 장기 흥행 및 순조로운 해외 진출에 대한 가능성 확대

'리니지 M'은 기존 출시된 모바일 게임들 대비 긴 라이프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이용자들이 게임 내 아이템 구매를 통해 개발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PC 대비 빠른 시간에 소모할 수 있다. 빠른 콘텐츠 소모는 고 ARPPU 이용자들의 이탈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이 단축된다. 하지만 '리니지 M'은 1998년 출시된 '리니지1'을 기반으로 개발된 게임으로 고 ARPPU 이용자들을 위한 빠른 콘텐츠 업데이트가 용이하다. 즉, 콘텐츠 고갈에 따른 이용자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매출 변동성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리니지 레볼루션'의 동남아 시장 내 흥행도 '리니지M'에게 긍정적이다. 동남아 시장 내 흥행은 '리니지 IP'의 영향력이 국내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는 점과 MMORPG 장르에 대한 수요가 해외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2000년부터 '검마니아'를 통해 대만에 서비스된 '리니지1' IP에 대한 수요도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리니지M'의 순조로운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3분기 출시를 앞둔 '아이온 레기온즈' 또한 북미 시장 내 '아이온'의 성과를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흥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매수 의견 유지, 목표주가 560,000원으로 상향

엔씨소프트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56만원(12MF에 Target PER 19.7배 적용)으로 기존 대비 19.1% 상향한다. 최근까지 파악된 ‘리니지 M’의 사전 지표와 PC보다 높은 모바일 MMORPG의 ARPPU를 반영해 ‘리니지 M’의 2017년 연평균 일매출을 기존 20억원에서 37억원으로 상향했다. ‘리니지 레볼루션’의 성공적인 동남아 시장 진출로 ‘리니지 M’ 해외 흥행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로열티 매출액 증가도 긍정적이다. 1998년부터 축적된 ‘리니지1’ 콘텐츠를 감안할 때 기존 모바일 대비 긴 라이프 사이클 유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리니지1’ 매출액의 단기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난 1분기 이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하드 코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업데이트를 통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매출 반등이 예상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838	237	165	7,633	(33.7)	272	27.9	13.7	2.6	10.6	1.3
2016A	984	329	272	12,783	67.5	361	19.4	12.3	2.7	14.9	1.5
2017F	1,688	606	475	22,371	75.0	636	18.2	11.9	3.7	23.0	1.4
2018F	2,022	778	616	29,023	29.7	808	14.0	8.9	3.1	24.9	1.7
2019F	2,373	1,039	823	38,748	33.5	1,071	10.5	6.1	2.5	27.1	2.0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6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동양생명(082640)

매수(유지)

목표가: 13,600원(유지)

종가(6/16): 9,950원

안방보험의 추가 투자 기대감 약화로 주가 하락

■ 안방보험의 추가 투자 기대감 약화로 주가 하락

전일 동양생명은 안방보험 회장 우사우호이 회장의 사임 소식으로 주가가 4.78% 하락했다. 우사우호이 회장은 안방보험의 1대 주주에 포함되지 않기에 국내 감독당국의 보험사 대주주 적격성 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주주 적격성 검사 대상은 모회사 법인과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다만, 동양생명/알리안츠생명을 비롯 국내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는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에 추가 투자 시 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잔여 지분을 공개매수 후 100% 자회사로 편입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방보험에게도 소액주주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방보험은 우사우호이 회장 사임 후 새로 회장을 선임했는데, 한국 투자 계획에 변화가 생겼는지는 판단이 어렵다.

■ 기대감 약화 예상되나, 추가 유상증자 부담도 덜었다

안방보험의 해외 투자에 제동이 걸린다면 동양생명 지분 공개매수에 기대감은 약화될 것이다. 다만, 안방보험의 추가 투자가 없다면 안방보험을 대상으로 한 제3자 유상증자도 현실성이 없어진다. 동양생명은 전년 12월 유상증자 결정 후 주가 13,200원에서 11,100원으로 하락했고, 추가 유상증자 우려로 주가는 10,000원 이하로 하락한 바 있다. 안방보험이 지분 확대를 위해 명분없는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공개매수 기대감 약화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과거 주가를 억눌렀던 유상증자 우려도 제기 되지 않을 것이다.

■ FY17 ROE 11.9%, PBR 0.63배, PER 6.1배 배당수익률 5.8%

안방보험의 투자 계획에 변화가 있다면 과거 우리가 제시한 투자포인트 배당수익률 콜옵션 vs 공개매수 업사이드에서 후자 기대감은 약화될 것이다. 다만, FY17 ROE 11.9%, 연말PBR 0.63배, PER 6.1배, 배당수익률 5.8%(FY14 배당 성장 35.5% 기준)를 감안하면 전자 투자포인트는 유효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논하기도 어렵다. 일부 언론은 안방보험과 중국은행의 거래 축소로 안방보험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중국 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시 동양생명을 비롯 해외법인을 통한 자금 지원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양생명의 고배당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보험료수익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수정BPS (%)	PER (x)	수정PBR (x)	ROE (%)	DY (%)
2012A	22,052	471	935	4,677	0.3	109,458	2.3	0.1	4.8	14.0
2013A	12,520	(9)	455	2,274	(51.4)	96,777	5.0	0.1	3.0	7.5
2014F	17,950	677	1,311	6,556	188.3	115,928	1.6	0.1	6.5	17.6
2015F	18,909	608	1,189	5,944	(9.3)	123,806	2.0	0.1	5.2	14.7
2016F	19,696	703	1,261	6,303	6.0	132,506	2.0	0.1	5.1	14.3

*상기 보고서는 2017년 6월 1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6/13(화)	6/14(수)	6/15(목)	6/16(금)	6/19(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374.70	2,372.64	2,361.65	2,361.83	2,370.90
	등락폭		16.83	-2.06	-10.99	0.18	9.07
	등락종목	상승(상한)	571(4)	407(0)	236(1)	365(0)	388(2)
		하락(하한)	222(0)	418(0)	555(0)	439(0)	418(0)
	ADR		117.45	119.07	115.06	117.03	111.40
	이격도	10 일	100.56	100.35	99.83	99.76	100.15
		20 일	101.57	101.31	100.69	100.54	100.75
	투자심리		50	50	40	50	50
	거래량 (백만 주)		322	393	335	329	289
	거래대금 (십억 원)		5,665	6,795	5,883	5,965	5,361
코스닥	코스닥지수		669.23	671.59	669.82	670.7	675.44
	등락폭		4.37	2.36	-1.77	0.88	4.74
	등락종목	상승(상한)	644(2)	577(3)	400(1)	532(1)	534(1)
		하락(하한)	430(0)	517(0)	694(0)	560(0)	578(0)
	ADR		106.76	107.06	106.71	106.79	107.46
	이격도	10 일	101.08	101.09	100.56	100.44	100.89
		20 일	102.60	102.70	102.20	102.08	102.54
	투자심리		90	90	80	80	80
	거래량 (백만주)		627	646	673	608	575
	거래대금 (십억원)		3,539	3,479	3,386	3,496	3,368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유가증권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매수	2,770.5	1,435.3	1,074.9	372.5	94.1	179.6	107.8	12.8	308.1	86.9
	매도	2,873.0	1,311.2	1,129.4	233.4	112.2	165.1	126.6	19.7	472.4	53.9
	순매수	-102.5	124.1	-54.5	139.2	-18.1	14.6	-18.8	-6.9	-164.3	32.9
	6월 누계	527.8	1,036.5	-2,125.2	-228.6	-115.1	-78.8	-283.9	-151.4	-1,267.3	560.9
	17년 누계	-4,846.3	8,597.7	-7,075.2	761.4	-1,225.6	-3,955.6	-84.5	-547.5	-2,023.5	3,323.8
코스닥	매수	2,957.2	274.9	127.1	31.3	6.7	23.9	19.4	3.4	42.4	18.4
	매도	2,966.9	237.5	135.9	37.4	14.9	28.6	17.9	2.7	34.4	37.2
	순매수	-9.7	37.4	-8.8	-6.1	-8.2	-4.8	1.5	0.7	8.0	-18.9
	6월 누계	141.1	203.5	-275.0	-77.3	-10.7	-23.6	-72.9	-9.9	-80.6	-69.6
	17년 누계	1,762.5	1,095.3	-1,997.9	-573.2	-289.6	-589.8	-244.7	-40.5	-260.2	-860.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8,555	미분류	-19,718
운수장비	2,510	화학	-4,720
통신업	2,341	건설업	-3,738
SK하이닉스	17,489	KODEX 200	-15,331
삼성전기	6,020	KODEX 레버리지	-7,856
현대모비스	5,212	고려아연	-5,144
POSCO	5,175	한전KPS	-4,660
TIGER 200	4,706	엔씨소프트	-4,023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의약품	5,819	서비스업	-29,050
운수창고	3,170	전기전자	-15,629
기계	2,818	유통업	-11,929
넷마블게임즈	8,774	삼성전자	-20,970
대한항공	5,858	두산밥캣	-11,447
삼성전기	5,822	롯데케미칼	-8,950
SK케미칼	4,918	LG디스플레이	-8,230
삼성SDI	4,722	한국전력	-6,59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2,483	미분류	-29,999
기계	1,354	전기전자	-10,502
통신업	1,103	전기가스	-685
KBSTAR 200	7,745	KODEX 레버리지	-31,369
NAVER	2,057	삼성전자	-8,371
두산인프라코어	983	TIGER 200	-3,093
TIGER 헬스케어	850	TIGER 200 IT	-2,909
SK텔레콤	628	SK하이닉스	-2,20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7,341	화학	-8,945
미분류	938	서비스업	-4,456
기계	727	건설업	-2,341
SK하이닉스	16,241	KODEX 200	-4,996
삼성전기	4,158	삼성전자	-4,082
삼성SDI	2,206	롯데케미칼	-3,679
ARIRANG 200	1,942	한국전력	-3,109
넷마블게임즈	1,875	한전KPS	-3,040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52,262	서비스업	-36,768
미분류	47,337	유통업	-23,515
기계	5,513	화학	-19,541
SK하이닉스	44,049	LG디스플레이	-17,414
TIGER 200	28,549	삼성전자	-14,363
삼성전기	21,103	한국전력	-13,978
KODEX 레버리지	18,024	롯데케미칼	-13,406
SK	10,741	두산밥캣	-12,382
SK케미칼	10,720	한전KPS	-11,784
현대모비스	8,540	아모레G	-9,132
삼성SDI	8,047	현대글로비스	-9,028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7,549	고려아연	-8,400
현대차	7,078	LG생활건강	-7,849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35,741	화학	-38,989
통신업	15,366	미분류	-21,443
운수창고	13,300	운수장비	-9,123
삼성전자	125,938	TIGER 200	-28,353
LG디스플레이	16,067	SK하이닉스	-20,755
대한항공	10,856	아모레퍼시픽	-18,738
NHN엔터테인먼트	8,092	S-Oil	-12,610
LG유플러스	7,747	현대모비스	-9,558
SK텔레콤	7,693	NAVER	-9,364
현대차	6,536	SK	-8,303
코오롱인더	6,197	두산중공업	-5,842
한전KPS	5,815	엔씨소프트	-5,729
SK이노베이션	5,428	한화케미칼	-5,60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1,532	오락,문화	-2,559	제약	16,340	디지털컨텐츠	-3,972
IT부품	1,362	인터넷	-1,998	IT부품	3,017	인터넷	-1,626
제약	1,067	기계,장비	-1,867	금속	1,093	오락,문화	-1,543
셀트리온	2,850	카카오	-2,016	셀트리온	15,154	더블유게임즈	-2,623
비아트론	1,182	에스에프에이	-1,878	휴젤	1,541	카카오	-1,626
비에이치	1,154	파라다이스	-1,462	태웅	1,228	위메이드	-1,569
더블유게임즈	711	CJ오쇼핑	-1,007	이오펙	1,084	모두투어	-1,127
원익홀딩스	605	에스티팜	-902	원익IPS	840	ISC	-1,06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667	화학	-540	IT부품	556	연구,개발	-3,254
디지털컨텐츠	463	인터넷	-517	음식료,담배	201	제약	-1,201
IT부품	435	통신장비	-397	환경	72	기계,장비	-1,086
CJ E&M	669	와이엠티	-534	셀트리온	1,217	신라젠	-3,368
SK머티리얼즈	486	카카오	-517	우리산업	368	메디톡스	-1,086
웹젠	464	우리로	-391	이지바이오	359	휴젤	-995
비에이치	333	대한약품	-148	아모텍	290	동아엘텍	-673
HB테크놀로지	316	테라세미콘	-138	비에이치	269	카카오	-578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13,845	인터넷	-7,682	제약	15,269	소프트웨어	-3,815
반도체	4,656	기계,장비	-6,801	연구,개발	9,126	운송장비,부품	-3,185
IT부품	4,234	오락,문화	-5,905	IT부품	8,386	통신장비	-1,610
셀트리온	23,565	카카오	-7,788	셀트리온	8,871	안랩	-2,983
비아트론	2,700	신라젠	-4,735	SK머티리얼즈	5,311	AP시스템	-2,632
인터플렉스	1,871	파라다이스	-3,495	신라젠	4,708	CJ E&M	-2,186
우리산업	1,603	에스에프에이	-2,643	바이로메드	4,221	우리산업	-1,773
주성엔지니어링	1,295	메디톡스	-2,569	카카오	3,858	하림홀딩스	-1,577
웹젠	1,262	유니슨	-2,512	인터플렉스	3,854	뉴트리바이오텍	-1,415
동국S&C	1,231	위메이드	-1,777	더블유게임즈	3,319	엑셈	-1,375
CJ E&M	1,228	모두투어	-1,701	주성엔지니어링	2,656	컴투스	-1,360
태웅	1,175	에스티팜	-1,567	휴젤	2,419	와이솔	-1,314
매일유업	1,086	코오롱생명과학	-1,529	비에이치	2,131	유니테스트	-1,20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삼화왕관	24 일	일성신약	51 일
대한제분	17 일	선진	31 일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	16 일	KPX홀딩스	24 일
KINDEX	14 일	아모레G	22 일
삼성그룹섹터가중	13 일	삼일제약	18 일
현대일렉트릭	13 일	부산가스	16 일
TIGER 원유선물인버스(H)	13 일	더존비즈온	16 일
대상홀딩스	13 일	영원무역홀딩스	16 일
일진홀딩스	13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AP위성	20 일	NICE평가정보	25 일
텔레칩스	14 일	케이아이엔엑스	18 일
골프존	11 일	파나진	18 일
프로스테믹스	11 일	세원물산	18 일
코리아에프티	11 일	형성그룹	16 일
포메탈	11 일	한국가구	16 일
동국알앤에스	11 일	알톤스포츠	15 일
제이브이엠	11 일	에스티큐브	1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SK하이닉스	159,570	삼성전자	47,164
TIGER 200	129,127	삼성화재	42,469
현대차	111,958	삼성전기	41,413
삼성전기	55,188	삼성중공업	29,003
LG이노텍	40,189	대한항공	28,765
넷마블게임즈	27,662	SK	26,842
KODEX 200	24,849	GS	23,513
현대위아	24,368	LG유플러스	22,585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	40,953	셀트리온	36,185
인터플렉스	9,168	휴젤	13,495
우리산업	8,312	메디톡스	9,801
에코프로	4,582	에스티팜	8,807
제이브이엠	4,172	SK머티리얼즈	7,207
매일유업	3,861	더블유게임즈	7,195
웹젠	3,300	에코프로	7,145
주성엔지니어링	3,201	신라젠	6,685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52,262	135,741	188,003
통신업	1,181	15,366	16,547
섬유의복	798	7,329	8,127
삼성전기	21,103	2,571	23,674
KODEX 레버리지	18,024	5,385	23,409
대한항공	4,355	10,856	15,211
SK텔레콤	6,986	7,693	14,679
현대차	7,078	6,536	13,614
NHN엔터테인먼트	5,181	8,092	13,273
코오롱인더	3,433	6,197	9,630
삼성SDI	8,047	857	8,904
넷마블게임즈	6,834	1,325	8,158
현대건설기계	3,533	2,196	5,729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13,845	15,269	29,114
IT부품	4,234	8,386	12,620
반도체	4,656	830	5,485
셀트리온	23,565	8,871	32,436
인터플렉스	1,871	3,854	5,725
주성엔지니어링	1,295	2,656	3,951
더블유게임즈	333	3,319	3,653
비에이치	1,006	2,131	3,137
비아트론	2,700	137	2,837
원익홀딩스	754	1,680	2,434
동국S&C	1,231	651	1,882
태웅	1,175	500	1,675
HB테크놀러지	283	1,208	1,491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새론오토모티브	71 일	KINDEX	27 일
삼화페인트	37 일	삼성그룹섹터가중	23 일
일성신약	27 일	태경산업	22 일
일동홀딩스	24 일	토니모리	19 일
세원정공	23 일	진양폴리	14 일
TIGER 우선주	21 일	KOSEF KRX100	13 일
선진	21 일	LIG넥스원	13 일
동아에스텍	21 일	SIMPAC	13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인포바인	27 일	조이맥스	28 일
모다이노칩	20 일	유비쿼스	23 일
미코	19 일	네오위즈홀딩스	16 일
조이시티	18 일	흥구석유	15 일
엔에이치스팩8호	16 일	에스텍	14 일
라이온캡텍	15 일	SBI엑시즈	13 일
하림	15 일	코메론	13 일
넥슨지티	15 일	제이씨케미칼	12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롯데케미칼	-62,700	TIGER 200	-129,308
LG화학	-59,746	현대차	-83,236
삼성전자	-51,302	SK하이닉스	-77,396
삼성화재	-44,650	한국전력	-57,471
NAVER	-38,120	LG화학	-56,924
POSCO	-37,638	삼성바이오로직스	-43,978
GS	-37,389	아모레퍼시픽	-38,200
SK	-34,230	BGF리테일	-37,081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카카오	-45,601	CJ E&M	-13,988
에스티팜	-27,432	AP시스템	-9,905
에스에프에이	-21,486	제이스텍	-6,548
휴젤	-10,991	컴투스	-5,685
신라젠	-10,130	에스에프에이	-5,468
CJ E&M	-10,077	원익IPS	-5,395
파라다이스	-8,999	하림홀딩스	-5,245
더블유게임즈	-7,690	이오테크닉스	-4,991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19,541	-38,989	-58,530
서비스업		-36,768	7,743	-29,025
유통업		-23,515	-2,220	-25,734
아모레퍼시픽		-5,986	-18,738	-24,724
한국전력		-13,978	-2,510	-16,487
엔씨소프트		-7,007	-5,729	-12,736
현대중공업		-6,925	-1,835	-8,759
한샘		-5,731	-1,548	-7,279
KODEX 200선물인버스2X		-6,254	-574	-6,828
한국항공우주		-2,925	-3,378	-6,303
두산중공업		-76	-5,842	-5,918
팬오션		-4,965	-428	-5,393
LG화학		-3,007	-2,318	-5,325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오락,문화		-5,905	-1,432	-7,338
운송장비,부품		-1,268	-3,185	-4,453
기계,장비		-6,801	3,007	-3,794
파라다이스		-3,495	-465	-3,960
안랩		-36	-2,983	-3,019
유니슨		-2,512	-143	-2,655
뉴트리바이오텍		-317	-1,415	-1,732
에스티팜		-1,567	-137	-1,704
하림홀딩스		-78	-1,577	-1,655
컴투스		-173	-1,360	-1,532
에이치엘비		-1,017	-461	-1,478
유니테스트		-143	-1,207	-1,351
쇼박스		-1,105	-96	-1,201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23	52,365
한미사이언스	141	13,362
아모레퍼시픽	33	10,679
LG디스플레이	269	10,233
NAVER	12	10,226
LG전자	109	9,440
엔씨소프트	22	8,919
현대로템	355	8,01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신라젠	245	5,614
카카오	43	4,424
코오롱생명과학	15	2,597
덕산네오룩스	96	2,556
하림홀딩스	438	2,274
인트론바이오	66	1,921
CJ E&M	20	1,543
제넥신	28	1,398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882	8,847,573
SK하이닉스	47,709	2,886,407
NAVER	1,828	1,630,525
아모레퍼시픽	4,304	1,372,982
LG디스플레이	36,322	1,358,442
하나금융지주	30,094	1,266,937
LG생활건강	1,286	1,263,187
KB금융	21,317	1,183,09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30,150	3,144,679
카카오	5,731	589,722
메디투스	484	280,130
파라다이스	17,993	277,991
바이로메드	2,492	254,200
로엔	2,956	253,015
코미팜	4,793	178,777
제넥신	1,866	91,699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증권	12,421	비금속	-3,301
서비스업	3,151	미분류	-2,641
기계	2,331	철강금속	-1,232
SK증권	9,274	삼성중공업	-4,119
두산인프라코어	3,064	동양	-2,171
현대로템	2,561	팬오션	-1,421
흥아해운	1,744	두산밥캣	-1,090
한진중공업	1,627	현대산업	-1,052
메리츠증권증권	1,407	한국토지신탁	-882
IHQ	1,329	두산중공업	-871
GS건설	1,034	티웨이홀딩스	-812
한미사이언스	999	쌍용양회	-778
LG디스플레이	975	KINDEX 200	-71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오락,문화	1,492	금융서비스	-6,288
기계,장비	995	계약	-1,835
연구,개발	895	소프트웨어	-1,063
파라다이스	1,465	셀트리온	-1,490
삼진엘앤디	732	케이비제9호스팩	-912
HB테크놀러지	628	원익홀딩스	-822
신라젠	608	하이제3호스팩	-619
이지바이오	599	웹젠	-592
디에스티로봇	440	카카오	-586
이트론	434	한화에이스스팩2호	-560
에스에이엠티	403	키움스팩3호	-540
씨케이에이치	367	CMG계약	-536
에스마크	301	하이제2호스팩	-525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6/13(화)	6/14(수)	6/15(목)	6/16(금)	6/19(월)
외국인	8,597.7	1,036.5	-81.1	-78.2	23.6	12.3	-162.9	124.1
기관계	-7,075.2	-2,125.2	-261.9	162.5	-122.1	-306.0	58.2	-54.5
(투신)	-3,955.6	-78.8	33.3	39.9	-24.7	8.5	-5.0	14.6
(연기금)	744.3	-576.2	-312.0	-70.3	-90.3	1.8	-71.4	-81.8
(은행)	-547.5	-151.4	-25.3	0.1	-0.9	-8.7	-8.9	-6.9
(보험)	-1,225.6	-115.1	-42.3	5.0	-16.9	8.5	-20.8	-18.1
개인	-4,846.3	527.8	142.2	-121.9	52.9	258.7	55.0	-102.5
기타	3,323.8	560.9	200.9	37.6	45.7	35.0	49.7	32.9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6/12(월)	6/13(화)	6/14(수)	6/15(목)	6/16(금)
KOSPI	1,961.3	2,026.5	2,361.8	2,357.9	2,374.7	2,372.6	2,361.7	2,361.8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5,241.2	24,371.5	25,441.5	24,600.3	25,517.6	25,241.2
(증감액)	6,853.1	58.8	2,486.8	44.5	315.2	-841.2	917.3	-276.4
(회전율)	28.8	24.8	37.5	37.4	36.2	41.8	36.3	37.5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924.4	40.8	128.3	-267.7	844.6	-219.7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3,981.0	3,830.4	3,879.4	3,936.9	3,969.3	3,981.0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4,363.3	4,287.9	4,308.6	4,344.3	4,353.7	4,363.3
미수금	151.0	125.6	131.7	112.4	116.3	148.5	124.7	131.7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6/9(금)	6/12(월)	6/13(화)	6/14(수)	6/15(목)
전체 주식형	67,953	-7,156	-463	-55	-90	148	-11	58
(ex.ETF)		-5,027	-225	-14	-58	47	-68	-39
국내주식형	50,651	-6,640	-397	-57	-96	160	12	42
(ex.ETF)		-4,580	-194	-16	-63	59	-46	-55
해외주식형	17,302	-516	-66	2	6	-12	-23	16
(ex.ETF)		-446	-30	2	6	-12	-23	16
주식혼합형	8,223	125	-37	6	-16	6	6	7
채권혼합형	22,143	-4,156	-344	-38	3	-27	-15	-99
채권형	105,058	1,040	566	143	-133	227	191	243
MMF	128,750	24,744	1,735	-10	-431	774	781	51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6/13(화)	6/14(수)	6/15(목)	6/16(금)	6/19(월)
한국	7,486	926	-72	-69	21	11	-144	109
대만	7,839	-263	-232	-265	-70	10	93	-
인도	8,344	448	680	762	13	-95	-	-
인도네시아	1,477	-148	-34	-13	-16	-20	15	-
태국	285	-113	-57	-45	-36	-6	30	-
남아공	-4,424	-1,057	-284	-144	31	-171	-	-
필리핀	402	379	266	13	230	10	12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6년말	6/13(화)	6/14(수)	6/15(목)	6/16(금)	6/19(월)
회사채 (AA-)	2.14	2.19	2.21	2.21	2.22	2.22
회사채 (BBB-)	8.27	8.43	8.45	8.45	8.47	8.46
국고채 (3년)	1.64	1.66	1.68	1.68	1.69	1.68
국고채 (5년)	1.80	1.87	1.87	1.85	1.87	1.86
국고채 (10년)	2.08	2.18	2.17	2.12	2.15	2.16
미 국채 (10년)	2.56	2.21	2.13	2.16	2.15	-
일 국채 (10년)	0.06	0.06	0.07	0.05	0.06	-
원/달러	1,210.50	1,128.30	1,123.90	1,124.10	1,134.10	1,132.70
원/100엔	1,030.04	1,024.99	1,030.07	1,016.09	1,024.02	1,022.76
엔/달러	117.52	110.08	109.11	110.63	110.75	110.75
달러/유로	1.05	1.12	1.13	1.11	1.12	1.12
DDR3 1Gb (1333MHz)	1.15	1.20	1.20	1.20	1.20	-
DDR3 2Gb (1333MHz)	1.50	1.69	1.69	1.69	1.69	-
NAND Flash 16Gb (MLC)	1.87	2.81	2.81	2.82	2.84	-
CRB 지수	193.97	177.53	174.70	174.46	174.74	-
LME 지수	2,663.2	2,721.6	2,719.7	2,714.6	2,719.8	-
BDI	961	870	865	855	851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46.46	44.73	44.46	44.74	-
금 (달러/온스)	1,131.35	1,262.00	1,275.50	1,254.55	1,255.4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2	13	14	15	16
日> 5월 PPI YoY (2.1%, 2.2%, 2.1%) 4월 핵심기계수주 MoM (-3.1%, 0.5%, 1.4%)	美> 5월 PPI 최종수요 (0.0%, 0.0%, 0.5%) 유럽> 6월 ZEW 서베이 (37.7, n/a, 35.1)	韓> 5월 실업률 SA (3.6%, 3.9%, 4.0%) 美> FOMC 금리결정 (1.25%, 1.25%, 1.00%)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2.8%, n/a, 7.1%) 5월 CPI MoM (-0.1%, 0.0%, 0.2%) 5월 소매판매 추정 MoM (-0.3%, 0.1%, 0.4%) 日> 4월 광공업생산 MoM (4.0%, n/a, 4.0%)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37, 241, 245) 5월 광공업생산 MoM (0.0%, 0.2%, 1.0%) 유럽> BOE 통화정책회의 (-0.25%, -0.25%, -0.25%)	美> 5월 주택착공건수 (1092, 1220, 1172) 6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94.5, 97.1, 97.1) 日> BOJ 통화정책회의 (-0.1%, -0.1%, -0.1%) 유럽> 5월 CPI YoY (1.4%, 1.4%, 1.9%)
19	20	21	22	23
		韓> MSCI 중국 A주 편입 결정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2.8%) 5월 기존주택매매(백만건) (n/a, 5.58, 5.57) 日> 4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n/a, 1.7%, -0.6%)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237) 유럽> EU 정상회담 6월 소비자대지수 (n/a, -3.0, -3.3)	美> 5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600, 569) 6월 마켓 미국 제조업 PMI (n/a, 53.0, 52.7) 日> 6월 일본 제조업 PMI (n/a, n/a, 53.1) 유럽> 6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n/a, 56.7, 57.0)
26	27	28	29	30
美> 5월 내구재주문 (n/a, n/a, -0.8%)	美> 6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n/a, n/a, 117.9)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2.8%) 5월 도매재고 MoM (n/a, n/a, -0.5%) 유럽> 5월 M3 통화공급 YoY (n/a, n/a, 4.9%)	美> 1Q GDP 연간화 QoQ (n/a, n/a, 1.2%)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유럽> 6월 소비자대지수 (n/a, n/a, n/a)	美> 5월 개인소득 (n/a, n/a, 0.4%) 6월 시카고 구매자협회 (n/a, n/a, 59.4) 6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n/a, n/a) 중국> 6월 제조업 PMI (n/a, n/a, 51.2) 日> 5월 실업률 (n/a, n/a, 2.8%) 5월 유효구인배율 (n/a, n/a, 1.48) 5월 전국 CPI YoY (n/a, n/a, 0.4%) 5월 광공업생산 (n/a, n/a, 4.0%)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